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새로운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배진한**

(상지대학교 방송영상문화학과)

이 연구는 새로운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매체간 연구'를 시도했다. 즉 이용자들이 처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양상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조명해보았다. 온라인조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물론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에 있어서도 작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이 더욱 제한돼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후 인간관계의 폭이 더욱 심하게 위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현실공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함으로써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대리 충족하려 하며,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강박적 이용'의 양상도 더욱 강하게 표출했고,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잠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도 더욱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대인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이동전화

* 이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jhbae3@sangji.ac.kr

1. 문제의 제기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 새로운 매체의 급속한 확산, 유·무선통신의 결합 및 방송·통신의 융합 등 최근의 매체환경 변화는 기존의 인간커뮤니케이션 지형을 근저에서부터 변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는가 최근에 발생한 소위 ‘인터넷대란’ 즉, 웹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망의 마비가 초래한 엄청난 파장을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¹⁾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자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고, 2001년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한 가구 당 월 평균 이동전화관련 지출액은 5만 2천 원으로 이는 가구 당 전체 소비 지출액의 3%, 전체 통신비 지출액의 59%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동전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5쪽).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매체발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도입이 곧바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기존매체의 사멸 혹은 완전한 대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 기능 및 역할의 변용과 재조정을 통해 신규매체의 공존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커뮤니케이션상황이 바로 이러한 신규매체의 ‘공존의 과도기’ 혹은 ‘통합적 매체환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뜻에서 개별 매체 하나 하나를 깊게 천착하는 연구와 함께 관계된 다수의 매체들의 연결망 속에서 개별 매체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총체적인 연구시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최근 외국의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들은 다양한 매체들에 둘러싸인 수용자들의 상황을 고

1) 소위 ‘1·25 인터넷대란’이라 불리는 사상 초유의 인터넷 전면마비 사태에 직면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패닉상태와 비슷한 것이었다. 가령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았다” “물이나 전기가 안나오는 것보다 더 답답했다” “9·11테러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등등의 네티즌들의 반응(윤창희·구희령, 2003)을 통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깊숙이 침투한 인터넷의 비중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려하여 관련 매체들간의 보완적 혹은 기능적 대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가령 Flanagan & Metzger, 2001; Jung et al., 2001; Reagan, 1996 등). 수용자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이라는 전체적 조망 속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존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 등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의 의미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이런 뜻에서 더 이상 후순위 연구주제로 밀어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가 나날이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까지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다룬 국내 연구들은 단일매체연구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개별매체를 따로 떼어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만, 인터넷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더 나아가 이동전화의 이용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²⁾나 이동전화관련 연구³⁾가 큰 차이가 없어

2) 이 점은 관련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잘 드러난다. 먼저 공중파텔레비전의 기능적 대안으로서 인터넷을 다룬 연구(강명신, 2001; 심미선, 2001 등),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의 의미와 한계를 다룬 연구(박선희, 2001; 윤영철, 2000; 윤태진·강내원, 2001; 황상재, 1996; 황용석, 2001 등),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연구(우지숙, 1999; 유의선, 1998, 1999; 성동규·김왕석, 1997 등), 인터넷 여성사이트에 대한 젠더연구(김유정·조수선, 2001 등), 상호작용성 및 정보전달형식 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최낙진, 1999; 최영·김병철, 2000), 광고매체로서의 인터넷 속성 및 인터넷신문의 경제적 특성을 다룬 연구(김유경·허웅·김운, 2001; 김유경·김은희, 2001; 김동규, 2001)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인접매체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3)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이동전화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선구적인 질적·양적 연구들을 통해 관련 현상의 많은 측면들이 해명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 기존연구들이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인구학적 속성 및 가치관 등의 비교, 이용과 충족차원의 도출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가령 김신동, 2001a, b; 나은영, 2001a, b; 배진한, 2001; 이인희, 2000 등), 인접매체와의 관련성을 천착한 연

보인다. 연구의 외연(外延)이 넓어지고 있음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인접매체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매체간 연구는 미미했다는 게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대개 인터넷 혹은 이동전화라는 단일매체에만 주목했을 뿐, 여전히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핵심매체로 기능하고 있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을 연계시킨 소위 ‘매체간 연구’는 일부 예외⁴⁾가 있긴 하지만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인터넷의 이용자, 이동전화의 이용자, 그리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자가 결코 별개의 인간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부족하나마 연구에 반영해보자는 뜻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통합적인 매체환경에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해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 글의 주요 관심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더욱 협소한가?

둘째, 이용자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인터넷 이용양상 및

구사례는 드물다고 하겠다.

- 4) 예컨대 김관규(2002)는 인터넷이라는 컴퓨터매체커뮤니케이션(CMC)을 통해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현실공간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인간관계의 특징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순기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익명성과 이질성이 더 높다는 주장을 폈다. 나은영(2002)은 이용자의 성별과 가치관에 따라 인터넷과 이동전화 이용의 차이를 분석한 바, 이용자의 변화개방성이 클수록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더욱 다양하게 이용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간의 디지털격차가 더욱 크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편 배진한(2002)은 이동전화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연계시키면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위축된 사람들은 이동전화를 통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폭도 협소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이 달라지는가?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실공간에서 충족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대리충족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인터넷을 더욱 강박적(強迫的)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후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나 친구와의 만남의 횟수 등이 줄어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위축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가?

셋째, 이용자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양상은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顯在的)·잠재적(潛在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이 더욱 편협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1) 면대면 채널의 이용

앞서 말한 바처럼 우리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핵심매체였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최근 급격하게 이용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 새로운 대인매체들이 어우러진 통합적 매체환경을 살고 있다. 한때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복잡한 통신수단에 불과했던 인터넷은 이제 쇼핑에서 섹스, 연구활동, 반체제 저항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인간활동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비싼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이용요금 때문에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 혹은 부의 상징이었던 이동전화는 어느덧 '3천만 가 입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자연스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과 이동전화 그리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양식, 관련행동양상이 이용자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라 어떻

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 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 이용상의 차이가 있는가?

이용자들의 성격과 매체선택행위 사이의 관계를 주목한 기존연구들은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가령 리치 등(Ritchie et al., 1990)은 매체선택의 주요변인으로 이용자의 내향성 혹은 외향성을 설정하고, 이러한 이용자의 성격요인에 따른 매체선택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인간적 교류의 범위가 넓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주도하며 사람들과의 만남,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선호하는 반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색적이고 자신 속으로 침잠하며 타인과의 만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도 좁을 뿐더러 당연히 대화상황에서도 수동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공개적이고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데 비해 내성적인 사람들은 면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대신 비공개적이고 비대인적인 매체(impersonal media), 즉 매개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대인커뮤니케이션학자인 버군(Burgoon, 1976)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소심함 등으로 인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p. 64).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은 나름의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가설 1]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관계의 폭이 더 작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 면대면 채널의 통해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친한 사람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2) 인터넷의 이용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약간만 변해도 평상시와는 판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특히 전술한 바처럼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 단서를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은, 현실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행동을 사이버공간에서 해 보도록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현실공간에서는 숫기가 없어서 남들 앞에서는 자기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커뮤니티의 ‘스타’로 떠오르는 등의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의명성에 따른 탈억제 성향의 증가’라는 인터넷 이용자의 심리이다(Wallis, 1999).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적 제한을 낮추는 인터넷의 탈억제 성향은 현실공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페르소나(persona) 즉, 정체성을 시험해보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⁵⁾ 유사한 맥락에서 슬러(Suler, 1996)는 매슬로(Maslow)의 ‘욕구 위계(位階)이론’을 인용하여 인터넷이 보다 쉽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현실공간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사이버공간에서 찾게 되고,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자신의 또 다른 성격을 발견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인 자아실현과 비슷한 기회를 사

5) 사이버공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익명성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 정체성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한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다. 인간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두 환경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행동의 무대로 이용하며, 현실과 사이버공간이 인간심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의 생활무대로 통합되는 것이다(황상민, 2001, 7쪽).

이버공간에서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현실공간에서 충족되지 커뮤니케이션 관련욕구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Wallis, 1999, p. 16).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은 나름의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가설 2-1]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에 더욱 적극적인 것이다.

시청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행태의 차이를 다룬 ‘사회부적응이론(social maladjustment theory)’에 따르면 텔레비전 중시청자(重視聽者)들은 불만스런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이러한 주장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가령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중시청은 부모와의 갈등과 관계가 있으며(Schramm, Lyle & Parker, 1961), 또래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해 친구가 적은 어린이일수록 텔레비전 중시청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Schramm & Roberts, 1971)를 볼 수 있다. 또한 스미스(Smith, 1986)는 텔레비전 중시청자들은 사회부적응, 수동적인 대인관계, 인내심의 결핍, 그리고 소심함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불만족스런 대인관계가 텔레비전 중시청과 관련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비록 텔레비전 시청행태를 다룬 연구결과를 인터넷 이용의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으나, 인터넷이 기존의 인쇄·방송·통신매체를 아우르는 융합매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인간의 심리적 속성과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가령 건(Gunn, 1998)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따라서 기존의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한 사람들이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자인 경우가 더 많음을 밝혀냈다. 또한 인터

넷의 강박적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이용자들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끼며 내성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선우, 2002). 이러한 논의와 앞서 언급한 버군(Burgoon, 1976)의 연구결과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누적된 불만족을 갖고 있거나 소심함 등으로 인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결과를 연결시켜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정이 가능하다.

[가설 2-2]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채널의 기능적 대안인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의 경향이 더 클 것이다.

한편 쇼트 등(Short, Williams, & Christie, 1976)은,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오히려 대화의 상대방을 보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화, 이동전화 혹은 인터넷과 같이 상대방의 모습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면대면 채널을 통한 상호작용에 부담을 느끼는 내성적이거나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기능적 대안(functional alternative)’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Rosengren & Windahl, 1982).⁶⁾ 즉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자연스런’ 채널인 면대면 채널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 충족이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 제한 받을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런’ 채널, 즉 면대면 채널의

6) 기능적 대안이란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말한다. 로젠그렌과 윈달(Rosengren & Windahl, 1982)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적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사회적·생물학적·심리적·문화적 이유에서 가장 ‘자연스런 것’으로 등장하는데, 이 ‘자연스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은 개인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자연스런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적·환경적 가능성이 제약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욕구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나 문화가 제공하는 ‘기능적 대안’을 통해 대신 충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기능적 대안에 더욱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비언어적 단서의 부재(不在, 이에 따른 낮은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등 매체 고유의 속성이 이러한 측면을 더욱 촉진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가장 자연스런 채널로써 커뮤니케이션 관련욕구를 충족하는데 제약을 받는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욕구충족을 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대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크고, 따라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위축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이론적 가정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다.

[가설 2-3]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더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 및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가 더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3) 이동전화의 이용

피셔(Fisher, 1992)는 전화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보다는 기존 면대면 관계의 유지·강화에 주로 활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사람들은 전화를 사교범위의 확대보다는 기존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기존연구를 통해 사회적·심리적 이유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의 범위를 확대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기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전화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가령 배진한, 2002a, b; Dimmick, Sikand, & Patterson, 1994). 한편 이동전화의 사회적 효과를 다룬 카츠와 오크스의 연구(Katz & Aakhus, 2002)는, 이동전화가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킬 수도 혹은 위축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주변인물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이동전화의 통화상대도 폭넓고 수적으로도 많은 반면 인간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이동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폭도 상대적을 더 위축돼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동전화 이용자의 심리적 속성이나 이용자가 처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이동전화가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깊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이용 및 대인관계에 관한 기존논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이론적 추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가설 3]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동전화 통화상대의 폭이 더 좁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동전화 통화 상대 수'와 '이동전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가 더 적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조사절차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2003년 1월 6일(월)부터 1월 12일(토)까지 한 주일간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나라리서치(주)가 대행하였다.⁷⁾ 조사기간 중 총 1,007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조사에 응했는데, 이동전화 비가입자와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917건을 최종분석에 투입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속성별 분포를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전체와 비교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7)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중 나라리서치(주)가 인터넷 이용자로 이뤄진 조사패널들에게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 패널들은 조사업체가 사전에 마련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순차적으로 화면에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키패드로 응답하면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호스트컴퓨터 기억장치에 저장되도록 했다.

보듯이 표본의 인구학적 속성별 분포는 성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56 : 44의 비율을, 연령별로는 10대·20대·30대·40대 이상이 7 : 57 : 29 : 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함께 제시된 인터넷 이용자 전체의 인구학적 속성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이용자 전체(56 : 44)와 거의 동일하고, 연령별로는 인터넷 이용자 전체에 비해 20대가 많이 표집되고 나머지 연령층은 과소표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그러했다.

<표 1> 표본의 성별·연령별 분포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전체와의 비교

		표 본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전체
인구학적 속성		응답자수(명)	백분율(%)	백분율(%)
성별	남자	513	55.9	55.6
	여자	404	44.1	44.4
연령	10대	63	6.9	7.9
	20대	525	57.3	45.7
	30대	264	28.8	32.4
	40대 이상	65	7.1	13.9
계		917	100.0	100.0

주) 전집의 인구학적 속성에 관한 자료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국내인터넷 이용현황 조사개요』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이 연구가 사용한 표본추출방식이 피조사자의 적극적인 설문참여의사를 전제로 한 일종의 의도적 표집이며, 국내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홍영림, 2003)들은 이 매체들의 가장 적극적인 연령층이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층이며 40대 이상은 이용은 하지만 그 사용빈도나 시간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 20대가 과대표집되고 나머지 연령층 특히 40대 이상이 과소표집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따라서 이러한 표본의 문

8)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 조사전문기관인 (주)인터넷메트릭스와 함께 전국 6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이용실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인터넷 이용자비율은 2001년 12월 현재 59.4%(전국민 중 59.4%가 인터넷을 이용한

제점 즉, 대표성의 한계를 유념하여 결과 해석에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밝혀둔다.

2) 설문문의 구성 및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전반부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이동전화 순서로 각 매체의 이용양상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먼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친한 사람의 수’를, 인터넷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과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 ‘(인터넷 사용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의 변화’ ‘(인터넷 사용 후)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의 변화’를, 이동전화의 경우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와 ‘이동전화 통화상대 수’로 구성되었다. 후반부는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를 묻는 항목들로 이루어졌다.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친한 사람의 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룬 기존연구(이재현, 1993)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즉,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몇 명 있는가를 묻고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숫자로 답하도록 했다.

다는 의미)이다. 연령별 이용자비율을 보면 각 연령층 전체를 100%로 했을 때, 10대 91%, 20대 90%, 30대 69%인데 비해 40대 39%, 50대 18%, 60대 2%로, 40대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인데 비해, 40대 이상은 15%로 연령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영림, 2003). 따라서 이 연구의 표집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별 이용률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2>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친한 사람'의 정의)

- | |
|-------------------------------------|
| 1) 스포츠나 취미 등 여가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
| 2) 직장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
| 3)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
| 4) 사회적 이슈나 정치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 |

인터넷의 경우 먼저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기존연구(황상민, 2001)를 참조하여 척도를 구성했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공간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험하는가를 묻는 4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자 자신의 경우와 가까운 정도를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렇게 얻어진 4개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으로 측정했는데, 응답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 .86$).

<표 3>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 측정항목

- | |
|--|
| 1)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
| 2) 인터넷에서 내 모습은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를 수 있다. |
| 3) 인터넷에서의 내 모습은 현실의 내 모습과 항상 같지는 않다. |
| 4)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현실의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 |

'인터넷의 강박적(強迫的) 이용'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문화 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척도'를 인용했다.⁹⁾ 여기서 강박적 이용이란 인터넷 이용을 자율적으로 조

9) 국내외의 인터넷 중독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중독척도는 영의 척도(Young, 1998)이다. 원래 이 척도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척도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은 다수의 서로 다른 차원들로 이뤄진 항목들 각각에 대한 응답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중독점수'를 측정해버리는, 통계학적 오류에 집중된다. 또한 너무나 많은 인터넷이용자를 '중독 가능자'로 분류하게 되는, 척도의

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며, 원래 ‘강박적 도박’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따온 것들이다. <표 4>에 제시된 3개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터넷 이용상황과 가까운 정도를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하고(‘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렇게 얻어진 3개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으로 측정했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점검 결과(Cronbach's $\alpha = .83$), 후속분석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의 변화’ 및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의 변화’는 인터넷을 하게 된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 및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3점 척도에 답하도록 했다(‘줄었다’ 1점, ‘변화 없다’ 2점, ‘늘었다’ 3점).

<표 4>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의 측정항목

- | |
|--|
| 1)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계속 하게 된다. |
| 2) 하는 도중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인터넷을 오랜 시간 계속하게 된다. |
| 3)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

이동전화의 경우 먼저 ‘이동전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는 ‘귀하의 이동전화 단말기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가 몇 개나 입력돼 있습니까?’라고 묻고 7점 척도에 답하도록 했다(‘없다’ 1점, ‘1~20개미만’ 2점, ‘20~40개미만’ 3점, ‘40~60개미만’ 4점, ‘60~80개미만’ 5점, ‘80~100개미만’ 6점, ‘100개 이상’ 7점). ‘이동전화 통화상대 수’는 ‘귀하와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통화하는 상대는 몇 명입니까?’라고 묻고 그 숫자를 직접 답하도록 했다. 그밖에 가설검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하루 평균 이동전화 음성통화 발·수신 통화수 및 문자메시지

변별력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인터넷중독 척도를 개발한 국내연구(한국정보문화센터, 2002)에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입증된 ‘강박적 이용’ 차원의 3개 문항만을 척도항목으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발·수신 건수'와 '(발신자번호서비스를 통해) 단말기에 찍힌 번호를 골라 받는 정도'도 측정하였다. 먼저 '하루 평균 음성통화 발·수신 통화수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건수'는 응답자가 일일평균 이동전화 이용량을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로 나누어 직접 숫자로 답하도록 했다. '찍힌 번호를 골라 받는 정도'는 '단말기에 찍힌 전화번호를 보고 상대를 가려서 전화를 받는 편이십니까?'라고 묻고 응답자 자신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에 답하게 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는 '대인커뮤니케이션 회피척도(*unwillingness to communicate scale*)'를 사용한 국내외 기존연구(송인덕, 1999; 배진한, 2002b; Burgoon, 1976 등)를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즉, 기존연구를 통해 요인 적재치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총 10개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자 자신의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과 유사한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에 답하도록 했다.

가설검증에 앞서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를 측정할 여러 문항들이 어떠한 요인구조로 이뤄져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했는데, 회전방식은 요인의 적재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택했다. 최종적인 척도항목은, 하나의 요인에 최소 .6 이상의 적재치를 보이면서 다른 요인들에는 .4 미만의 적재치를 보이는 동시에 최소 3개 이상의 항목들이 한 개 요인에 적재되는 항목들만을 추려낸다는 기준(김정기, 1998)을 적용했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아이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2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외 기존연구의 결과(송인덕, 1999; 배진한, 2002b; Burgoon, 1976 등)와 유사한 것이다.

첫번째 요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은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은 내 생각과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등 4개 항목들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의 43.7%를 설명해준다. 두번째 '소심' 요인은 '나는 숫기가 없어서 대화에서 말을 적게 하는 편이다' 등 4개 항목들로 구성되며 전체변량의 15.2%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의 적재가 불분명한 2개 항목은 후속분석에서

<표 5>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불만족'과 '소심'의 요인분석결과(사례수=917)

항 목	평균값 (5점만점)	표준 편차	요인	
			I	II
(I)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불만족				
나는 내 친구들이 나와 대화할 때 솔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32	.95	.59	.45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은 내 생각과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2.10	.87	.78	.23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2.43	.97	.65	.14
나의 가족들은 내 관심사와 행동에 대해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2.08	.92	.82	.13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단지 시간낭비일 뿐이다.	1.73	.88	.78	.14
(II) 소심				
나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3.15	.94	.20	.55
나는 숫기가 없어서 대화에서 말을 적게 하는 편이다.	2.77	1.05	.14	.7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 때 왠지 걱정이 앞선다.	2.69	1.02	.19	.81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할 때 두려움이 앞선다.	2.71	1.04	.26	.77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되도록 피한다.	2.48	1.01	.34	.75
아이겐 값(Eigen Value)			4.37	1.52
설명된 변량(%)			43.7	15.2
신뢰도(Cronbach's α)			.71	.74

제외했다. 한편 상기 2개 요인으로 묶여진 8개 항목들을 각 요인별로 합산 평균한 '커뮤니케이션 불만족'과 '소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았는데, <표 5> 하단에서 보는 바처럼 둘 다 .7 이상으로 나타나 후속분석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가설의 검증은 t-test를 사용하였다. 즉,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의 두 개 하위차원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불만족'과 '소심'을 각각 중간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인별로 두 집단 간 평균값 차이의 유의성을 t-test로 검증했다는 것이다.

4. 연구결과

1)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하위차원별 상·하위집단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차이(가설 1)의 검증결과)

[가설 1-1]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 이용상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의 검증가설로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관계의 폭이 더 작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면대면 채널의 통해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친한 사람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였다.

<표 6>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하위차원별 상·하위 집단간 종속변인별 평균값의 차이(일방검증)

종속변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독립변인)			
	면대면접 불만족(하위차원)		소심(하위차원)	
	낮은 집단 (N=360)	높은 집단 (N=557)	낮은 집단 (N=455)	높은 집단 (N=462)
친한 사람의 수(명)	3.55	2.73	3.41	2.70
	t=-5.41, df=915, p<.001		t=-4.77, df=914.5, p<.001	
(인터넷 사용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줄었다 1점, 무변화 2점, 늘었다 3점)	1.96	1.84	1.97	1.85
	t=-2.45, df=791.3, p<.05		t=-4.28, df=914.6, p<.001	
(인터넷 사용 후)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줄었다 1점, 무변화 2점, 늘었다 3점)	1.85	1.74	1.83	1.73
	t=-3.79, df=828.4, p<.001		t=-3.27, df=914.8, p<.01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5점 만점)	2.64	2.96	2.67	3.00
	t=5.58, df=915, p<.001		t=6.26, df=905.1, p<.001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5점 만점)	3.08	3.34	3.08	3.39
	t=3.60, df=720.5, p<.001		t=4.71, df=915, p<.001	
(이동전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7점 만점)	4.82	4.58	4.89	4.47
	t=-2.07, df=915, p<.05		t=-3.83, df=915, p<.001	
(이동전화로) 빈번하게 통화하는 상대 수(명)	4.19	2.59	4.50	3.87
	t=-4.22, df=915, p<.01		t=-1.85, df=915, p<.05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가 전술한 바처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과 ‘소심’이라는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돼있는 관계로 하위차원별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의 경우 가설검증을 위해 중간값(2.0)을 기준으로 상·하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종속변인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속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관계의 폭 즉, ‘친한 사람의 수’는 평균값 2.73(상위집단) 대 3.55(하위집단)로 가설의 예측과 같은 방향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41$, $df=915$ $p<.001$). 다시 말해서 평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족이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관계의 폭 즉, ‘친한 사람의 수’가 더 적다는 점이 자료의 뒷받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하위차원인 ‘소심’의 경우도, 중간값(2.75)을 기준으로 상·하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 종속변인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가설이 예측한 바대로 상·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속변인인 ‘친한 사람의 수’는 평균값 2.70 대 3.41로 ‘소심’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t=-4.77$, $df=914.5$, $p<.001$). 이로써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두 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가설이 예측한 대로 상·하위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1]은 자료의 뒷받침을 받았다. 이러한 [가설 1]의 검증결과를 볼 때, 평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소심함 때문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의 폭이 더 좁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은 나름의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2)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하위차원별 상·하위집단간
인터넷 이용의 차이
([가설 2-1], [가설 2-2] 및 [가설 2-3]의 검증결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예측한 [가설 2-1]의 경우도 앞의 가설과 동일한 검증방법을 사용했다. 독립변인의 첫 번째 하위차원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의 경우, 중간값(2.0)을 기준으로 구분한 상·하위 두 집단 사이에 종속변인의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졌다. 즉, 상위집단(평균값 2.96)이 하위집단(평균값 2.64)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t=5.58$, $df=915$, $p<.001$). 다시 말해서 자신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불만이 더 큰 사람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두 번째 하위차원인 ‘소심’의 경우도, 가설이 예측한 바대로 종속변인인 ‘새로운 정체성의 실험’의 평균값은 2.96(상위집단) 대 2.64(하위집단)로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밝혀졌다($t=6.26$, $df=905.1$, $p<.001$). 이로써 독립변인의 두 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가설이 예측한 대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 2-1]은 자료의 뒷받침을 받았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채널의 기능적 대안인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의 경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예측한 [가설 2-2]의 경우도 앞의 가설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독립변인의 첫 번째 하위차원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에 있어서는 <표 6>에서 보듯이 종속변인인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의 평균값은 가설이 예측한 바대로 3.34 대 3.08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t=3.60$, $df=720.5$, $p<.001$). 다시 말해서 현재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불만이 더 큰 사람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자료의 뒷받침을 받았다.

독립변인의 두번째 하위차원인 '소심'의 경우도, 상·하위집단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속변인인 '인터넷의 강박적 이용'의 평균값은 3.34(상위집단) 대 3.08(하위집단)로 가설이 예측한 방향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밝혀졌다는 것이다($t=3.60$, $df=720.5$, $p<.001$). 이로써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두 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가설이 예측한 대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 2-2]는 검증되었다.

한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더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 및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가 더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가설 2-3]도 앞의 가설들과 같은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의 첫번째 하위차원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의 경우,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1.84 대 1.96($t=-2.45$, $df=791.3$, $p<.05$),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는 1.74 대 1.85 ($t=-3.79$, $df=828.4$, $p<.001$)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 하위차원인 '소심'의 경우도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1.85 대 1.97($t=-4.28$, $df=914.6$, $p<.001$),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는 1.73 대 1.83($t=-3.27$, $df=914.8$, $p<.01$)으로 상·하위집단간에 가설이 예측한 바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2-3]은 자료의 뒷받침을 받았다. 이러한 [가설 2-1], [가설 2-2] 및 [가설 2-3]의 검증결과를 통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하며 인터넷의 이용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강박적 이용' 수준이 더 높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과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3)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하위차원별 상·하위집단간 이동전화 이용의 차이([가설 3]의 검증결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동전화 통화상대의 폭이 더 좁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동전화 통화상대 수’와 ‘이동전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가 더 적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가설 3]도 앞의 가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독립변인의 첫번째 하위차원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의 경우, <표 6>에서 보듯이 이동전화를 통한 잠재적(潛在的) 대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을 의미하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는 4.58 대 4.82($t=-2.07$, $df=915$, $p<.05$),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顯在的) 대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을 뜻하는 ‘빈번하게 통화하는 상대의 수’는 2.59 대 4.19($t=-4.22$, $df=915$, $p<.01$)로 가설이 예측한 바와 같이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낮음이 밝혀졌다.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잠재적 커뮤니케이션 상대의 폭이 더 협소하다는 점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겠다.

두번째 하위차원인 ‘소심’의 경우도, 가설이 예측한 바대로 이동전화를 통한 잠재적 대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을 의미하는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수’는 4.47 대 4.89($t=-3.83$, $df=915$, $p<.001$), 현재적 대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을 뜻하는 ‘빈번하게 통화하는 상대의 수’는 3.87 대 4.50으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1.85$, $df=915$, $p<.05$). 다시 말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인 사람일수록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잠재적 커뮤니케이션 상대의 폭이 더 협소하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써 독립변인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두 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가설이 예측한 대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3]은 자료의 뒷받침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잠재적 커뮤니케이션 상대의 폭이 더 협소할 개연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이동전화의 음성통화 발·수신 통화수, 문자메시지 발·수신 건수, 단말기에 표시된 상대방의 번호(발신번호서비스)를 골라 받는 정도 등에 있어서도 독립변인의 하위차원별 상·하위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회피의 하위차원별 상·하위 집단간 이동전화 통화량 평균값의 차이(일방검증)

매체	종속변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회피			
		면대면컴 불만족(하위차원)		소심(하위차원)	
		낮은 집단 (N=360)	높은 집단 (N=557)	낮은 집단 (N=455)	높은 집단 (N=462)
이동 전화	하루평균 음성통화 발신통화수(통)	4.61	2.93	5.26	3.89
		t=-4.49, df=915, p<.001		t=-3.99, df=812.1, p<.001	
	“ 수신통화수(통)	6.03	5.31	6.44	4.76
		t=-1.74, df=915, p<.05		t=-4.17, df=850.8, p<.001	
	“ 문자메시지 발신 건수(건)	6.86	6.26	7.61	5.39
		t=-.83, df=915, N. S.		t=-3.10, df=693.9, p<.01	
	“ 수신 건수(건)	7.34	6.85	8.28	5.81
		t=-.55, df=915, N. S.		t=-2.85, df=598.5, p<.01	
	찍힌 번호를 골라 받는 정도(5점 만점)	2.59	2.83	2.66	2.82
		t=2.44, df=831, p<.05		t=1.73, df=831, p<.05	

주) N.S: Non Significant

먼저 첫번째 하위차원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 경우, ‘하루평균 음성통화 발신통화수’는 2.93 대 4.61($t=-4.49, df=915, p<.001$), ‘하루평균 음성통화 수신통화수’는 5.31 대 6.03($t=-1.74, df=915, p<.05$)으로 상위 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하루평균 문자메시지 발·수신 건수’에 있어서는 평균값 차이의 방향은 앞의 [가설 3]의 검증결과와 같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¹⁰⁾ 한편 ‘찍힌 번호를

10)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의 발·수신 건수에 있어서만 유독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불만족의 상·하위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는, 이동전화

골라 받는 정도'에 있어서는 2.83 대 2.59($t=2.44$, $df=831$, $p<.05$)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불만이 더 큰 사람일수록 이동전화 음성통화 발·수신통화수는 더 적은 반면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를 이용해 통화상대를 더욱 선택적으로 고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음성통화량은 작은 반면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한 통화상대의 선별에 더 신중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두번째 하위차원인 '소심'에 있어서는, '하루평균 음성통화 발신통화수'는 3.89 대 5.26($t=-3.99$, $df=812.1$, $p<.001$), '하루평균 음성통화 수신통화수'는 4.76 대 6.44($t=-4.17$, $df=850.8$, $p<.001$), 하루평균 문자메시지 발신건수'는 5.39 대 7.61($t=-3.10$, $df=693.9$, $p<.01$), '하루평균 문자메시지 수신건수'는 5.81 대 8.28($t=-2.85$, $df=598.5$, $p<.01$)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찍힌 번호를 골라 받는 정도'에 있어서도 2.82 대 2.66($t=1.73$, $df=831$, $p<.05$)으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인 사람일수록 이동전화 음성통화 발·수신통화수, 문자메시지 발·수신 건수가 더 적은 반면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를 이용해 통화상대를 더욱 선택적으로 고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소극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건수 등 이동전화 통화량은 작은 반면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한 통화상대의 선별은 더 많이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렇

문자메시지 자체의 매체적 속성에서 비롯된 바 크지 않는가 하는 게 연구자의 추정이다. 즉 문자메시지(SMS)가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성도 들을 수 없다는 점, 즉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 상당히 낮은 점에서 이동전화의 음성통화보다는 오히려 이메일이나 채팅 등 컴퓨터 매개커뮤니케이션(CMC)과 유사한 성격이 강하다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이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본격적 후속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동전화를 통한 대인네트워크의 폭이 더욱 협소할 것이라 예측한 [가설 3]의 검증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새롭게 등장한 매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는 대개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기능이 기존매체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별성 혹은 우월성을 갖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대중을 이룬다. 새로운 매체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식의 등장과 같은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지형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함축하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데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이스(Rice, 1999)가 지적하듯이, 새로운 매체 고유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여러 기존매체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그 매체가 접하는 위상과 기능을 평가하고 점진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통해 그 매체를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기존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망 속에서 바라보는 '매체간 연구'를 부족하나마 시도해보았다. 즉, 이용자들이 처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연구는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재 자신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소심함 때문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물론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에 있어서도 작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폭이 더욱 제한돼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후 인간관계의 폭이 더욱 심하게 위축될 개연성이 있음을 이 연구의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소 빈번하게 면대면 접촉을 하는 ‘친한 사람의 수’가 더 적을뿐더러 인터넷 이용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가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현실 공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함으로써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대리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강박적 이용’의 양상도 더욱 강하게 표출했다. 아울러 이동전화를 통한 현재적·잠재적 인간관계의 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동전화로 빈번하게 통화하는 상대의 수’와 ‘단말기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수’도 더욱 제한적이라는 점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동전화를 통한 음성 및 문자메시지 통화량이 더 작고, 발신자번호서비스를 통해 통화 상대방을 더욱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를 보강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과 새롭게 등장한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 사이에는 결코 작지 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현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핵심매체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용과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그것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이용자가 처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부터 작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추론은 나름의 실증적 자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수의 개별매체들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 풍부한 매체환경에 걸맞은 본격적인 후속연구들이 대인커뮤니케이션 지형의 더 많은 세부적인 측면들을 보다 정교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본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연구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의도적 표집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 다소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다. 확률표집에 근거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한 좀더 원숙한 연구가 이 한계를 극복해주기를 기대한다.

두번째로, 앞의 한계가 관련된 것이지만 40대 이상의 표본 자체가 실제 인터넷 이용자통계보다 과소표집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겠다. 물론 이 연구가 연령별 집단간 비교를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 새로운 매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노년층의 새로운 대인매체 이용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정보사회의 역기능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관점에서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대인매체 이용의 문제를 접근하는 후속연구가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천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로, 이 연구가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전반적인 이용양상을 살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그 전반적인 상(象)을 그려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겠다. 특히 이 연구의 애초의 목적이었던 ‘통합적인 매체환경 속에서의 대인매체의 이용’문제를 다루려면 이 연구가 설정한 독립변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 등 대인매체들의 이용이라는 종속변인들의 관계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했지만 이 연구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좀더 정교한 연구방법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대인커뮤니케이션 지형을 좀더 폭넓게 조명할 수 있는 원숙한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명신 (2001). 텔레비전의 기능적 대안으로서 인터넷방송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9~38.
- 김관규 (2002).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한 인간관계와 현

- 실공간 인간관계의 비교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73~109.
- 김동규 (2001). 한국 인터넷신문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76~117.
- 김선우 (200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동 (2001a). 전화와 공간: 이동전화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재구성. 한국언론학회 학술세미나 『우리나라에서의 휴대폰 보급 및 사용 문화』, 30~42.
- 김신동 (2001b). 호모 텔레포니쿠스의 등장: 이동전화의 확산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62~85.
- 김유경·김은희 (2001). 인터넷 광고의 내용분석을 통한 국가간 비교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45~86.
- 김유경·허웅·김운 (2001). eBrand로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29~276.
- 김유정·조수선 (2001). 사이버 커뮤니티로서의 인터넷 사이트 연구: 여성 사이트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45권 3호, 5~38.
- 김정기 (1998). 청소년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행태와 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43권 1호, 78~114.
- 나은영 (2001a).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189~228.
- 나은영 (2001b). 휴대폰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 양식적 특성과 한국문화. 한국언론학회 학술세미나 『우리나라에서의 휴대폰 보급 및 사용 문화』, 1~29.
- 나은영 (2002). 여성의 뉴미디어 이용과 가치관: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77~115.
- 박선희 (2001). 인터넷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기사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17~155.
- 배진한 (2001). 이동전화의 충족과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이동전화의 적합성 인식: 세대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160~188.
- 배진한 (2002a). 전화의 이용과 충족 그리고 대인매체로서의 전화의 속성.

-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8호, 131~164.
- 배진한 (2002b). 이용자의 인적 속성이 이동전화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9호, 155~184.
- 성동규·김왕석 (1997).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27~260.
- 소현진 (1996).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덕 (1999). 온라인중독증 개념의 타당성 검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선 (2001). 케이블TV 및 인터넷 등장에 따른 지상파방송 시청행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50~283.
- 우지숙 (1999).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본 사이버공간상의 여성문제. 『한국언론학보』, 44권 1호, 244~286.
- 유의선 (1998).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형법 307-310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2호, 179~209.
- 유의선 (1999).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소고: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5호, 187~220.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109~150.
- 윤창희·구희령 (2003. 1.27). 인터넷대란: 물·전기 끊긴 것보다 더 답답. 『중앙일보』, 6.
- 윤태진·강내원 (2001).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인스닷컴”, “인터넷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기획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306~343.
- 이인희 (2001). 대학생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261~293.
- 이재현 (1993). 생활양식의 사사화와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현안에 대한 공청회 발표자료.

- 최낙진 (1999). 인터넷신문의 웹디자인 구성과 정보전달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권 1호, 441~467.
- 최영·김병철 (2000). 인터넷 신문들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성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172~200.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국내인터넷 이용현황 조사개요』.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PC통신 이용실태 및 이용자만족에 관한 조사』.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인터넷중독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홍영림 (2003, 1.27). 국내 인터넷이용률. 『조선일보』, 29.
- 황상민 (2001). 『인터넷 중독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보고서 01-86호.
- 황상재 (1996).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능성과 한계: 언론자유와 규제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8, 43~86.
-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16대 총선 기간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3호, 421~456.
- Burgoon, J. (1976). The unwillingness-to-communicat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43, 60~69.
- Dimmick, J., Sikand, J., & Patterson, S. (1994). The gratifications of the household telephone: Sociability, instrumentality and reassurance. *Communication Research*, 21(5), 643~663.
- Fisher, C. (1992). *America calling: A social history of the telephone to 1940*.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Flanagin, A., & Metzger, M. (2001). Internet use in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7(1), 153~181.
- Gunn, D.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ed presented to the Univ. of Hertfordshire, UK. 147.197.152.160/netquest/all-ver6.html.
- Jung, J., Qiu, J., & Kim, Y. (2001). Internet connectedness and inequality: beyond the "divide." *Communication Research*, 28(4), 507~535.
- Katz, J., & Aakhus, M. (2002). Introduction: framing the issues. In J.

- Katz and M. Aakhus(Eds.), *Perpetual contact*(pp. 1-13), Cambridge Univ. Press.
- Reagan, J. (1996). The “repertoire” of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0, 112~121.
- Rice, R. (1999). Artifacts and paradoxes in new media. *New Media and Society*, 1(1), 24~32.
- Ritchie, L., Fitzpatrick, D., & Anne, M. (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rapersonal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7(4), 523~544.
- Rosengren, K., & Windahl, S. (1982). Mass media consumption as a functional alternative. In Gumpert, & Cathcart, (Eds.), *Inter/Media: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a media world*(pp. 212-2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ramm, W., Lyle, J. & Parker, E. (1961). *Television in the lives of our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ramm, W., Roberts D. (1971). Children's learning from the mass media. In Roberts, D. & W. Schramm(Ed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rev. ed.)pp. 161-185), Urbana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ort, J., Williams, E., & Christie, B. (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Smith, R. (1986). Television addiction. In B. Jennings & D. Zillmann(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pp. 109-12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uler, J. (1996). What is this thing eating my life?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at the “palace” world wide web, www1.rider.edu/~suler/psycyber/ea1ife.html.
- Wallis, P. (1999).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황상민 역(2001). 『인터넷 심리학』. 서울: 에코리브르.
- Young, K. (1998). *Caught in the net*. 김현수 역 (200). 『인터넷 중독증』. 서울: 나눔의 집.

(최초 투고 2003.8.25., 최종 원고 제출 2003.10.13)

The Effect of Face-To-Face Communication Situation on New Media Uses

Bae, Jin-Han

Professor

Dept. of Media & Culture, Sangji University

Despite the near ubiquity of mobile phone and internet, the 'meta research' that deals with face-to-face(FTF), mobile phone and internet together as interpersonal media is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begin with the purpose of fair repositioning of mobile phone and internet in Korean'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horiz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effect of face-to-face communication situation on uses of mobile phone and internet a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edia. The related raw data were collected from on-line survey process,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persons who are more troublesome in FTF communication because of their timidness or personality problem are more restricted in human communication network via mobile phone and internet than the others who are not. And more 'addicted' in internet use and more active in trying another personality(Persona) in cyber space. And more shrunk in meeting and conversation wi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after internet adoption.

Key wor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ternet, Mobile phone